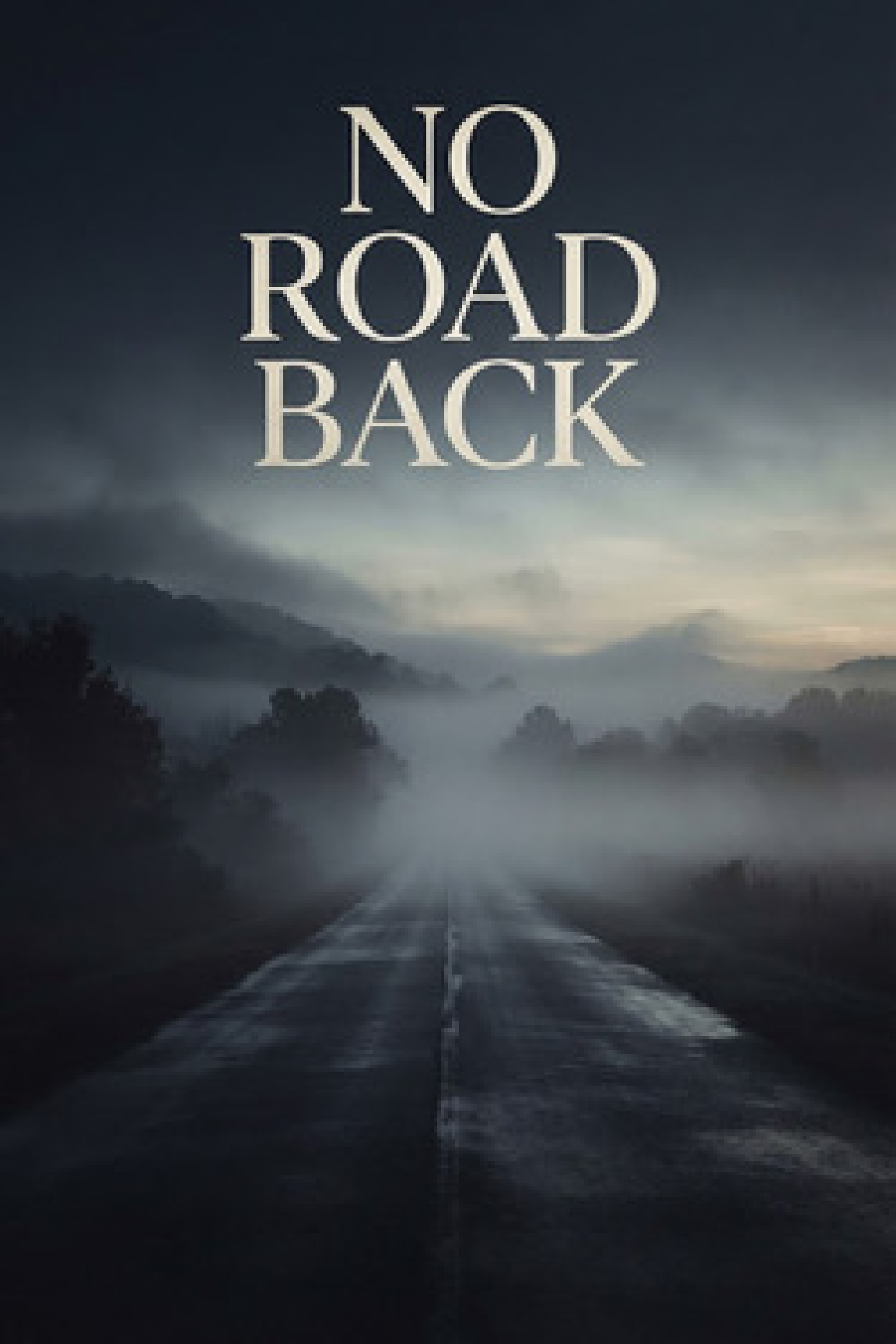

NO
ROAD
BACK

제2부

문턱 4

돌아갈 길은 없다

출발로 시작되는 여행이 있다.

그리고 상실로 시작되는 여행이 있다.

이것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오랫동안 나는 귀환이 지리의 문제라고 믿었다.

한 장소를 떠나는 것.

거리를 건너는 것.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

단순한 정의였다.

편리한.

그리고 틀린.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어떤 귀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착해야 할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변해서 그곳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돌아가고 싶은 욕구는 남는다.

인간의 가장 깊은 그리움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모든 것이 더 단순해 보이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더 분명하던 때로.

더 정돈되어 있던 때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

놓친 기회들로.

내리지 않은 결정들로.

삶이 아직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는 듯하던 순간들로.

그러나 시간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의 일이 아니다.

시간은 변형시킨다.

결코 돌려주지 않는다.

불가능한 귀환을 좇던 세월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다.

나 자신의 이전 판본들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 청년.

그 직업인.

그 아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확신하던 그 남자.

모든 시도는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실망으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어느 아침,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방식을 바꾼 것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정말로 원한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감각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어떤 확신.

어떤 친숙함.

질문이 답보다 적어 보이던 세계의 한 판본.

그러나 삶은 시간 여행을 제공하지 않는다.

변형만을 제공한다.

귀환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예전의 내 모습을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던 모습에 다가가는 일로.

그 차이는 엄청나다.

되돌아가려 할 때, 우리는 시간과 싸운다.

앞으로 가기를 받아들일 때, 마침내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집을 찾으며 생을 보낸다.

그것이 장소라고 생각한다.

도시라고.

거리라고.

나라라고.

그러다 집이란 영혼의 상태임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어떤 지리적 좌표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많은 나라를 지나왔다.

많은 문화를.

많은 언어를.

매번 무언가를 남겨 두고 왔다.

매번 다른 무언가를 거두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경험의 살아 있는 기록 보관소가 되어 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어느 시점에 나는 이렇게 묻기를 그만두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지니고 가는가?"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유용했다.

소속은 바뀌기 때문이다.

국경은 바뀐다.

지도는 바뀐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지닌 것은 계속 여행한다.

방향 상실의 감각이 여느 때보다 강했던 몇몇 밤을 기억한다.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지던 밤들.

사람들.

장소들.

확신들.

나 자신마저.

그런 순간이면 가장 오래된 유혹이 떠올랐다.

되돌아가는 것.

무르는 것.

되돌려 놓는 것.

이전의 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나 매번 현실은 같은 진실을 보여 주었다.

이전의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지점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의 선택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과거를 목적지가 아니라 도서관으로 여기게 되었다.

방문할 곳.

살 곳이 아니라.

과거에 사는 사람은 천천히 현재에 사는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없이는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지나온 도시들.

내가 놓친 기회들.

성공들.

패배들.

모든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형태로.

이미 쓰인 페이지들처럼.

다시 읽을 페이지.

다시 쓸 페이지가 아니라.

그것은 해방이었다.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일을 마침내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지을 수 있는 것에 힘을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과거가 나를 따라다니기를 그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과거를 목적지로 대하기를 그만두었을 때.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많은 이가 내 삶에서 떠나갔다.

어떤 이는 선택으로.

어떤 이는 필요에 의해.

또 어떤 이는 그저 시간의 작용으로.

처음에 나는 그 부재들을 상실로 해석했다.

그러다 어떤 존재들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겨진 가르침 속에.

기억 속에.

행동 속에.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속에.

이것 또한 귀환이었다.

사람들의 귀환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의미의 귀환.

어쩌면 성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무엇도 본래의 형태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

그러나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형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나는 귀환의 길을 찾는 일을 그만두었다.

어떤 지도도 보여 준 적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로도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

도착하고 있었다.

모든 출발과 모든 상실과 모든 만남과 모든 변형이 지어 낸 나 자신의 한 판본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역설이 풀린 것은 그때였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찾던 귀환은 과거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에게로 이어졌다.

그래서 어디도 아닌 곳으로부터의 귀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다.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목적지에 주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리가 없는 곳이었다.

경계도 없이.

좌표도 없이.

평생 지나다니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곳.

어디도 아닌 곳으로부터의 귀환.

내가 되어 있던 것을 향한 귀환.